

<작은 꿀벌 한 마리가>

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꿀벌의 힘!

자연의 중요성과 사랑을 키워 주는 생태 그림책



토니 디알리아 글 · 엘리스 린드스트럼 그림 · 김여진 옮김
4~7세, 초등 저학년

아름다운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그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작은 꿀벌과
자연 속 꿀벌의 엄청난 활약을 만나 보세요!

누리과정

자연탐구 > 탐구과정 즐기기
자연탐구 > 자연과 더불어 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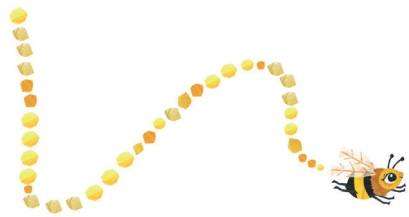
교과연계

초등 2-1 <자연> 그림책으로 만나는 자연
초등 2-1 <자연> 색으로 만나는 자연
초등 2-1 <자연> 숲속을 걸어요
초등 2-1 <자연> 나도 농부야

1. 그림책 장면을 보고 떠오르는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.



예) 꿀벌이 꽃 위를 날아다닙니다.
꿀벌이 꽃가루를 퍼뜨립니다.



예) 개미 다섯 마리가 나뭇가지 위를
기어갑니다.

1.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.



1) 꿀벌이 살고, 잠을 자는 곳은 어디일까요?

• _____



2) 꿀벌은 꽃에 앉아 무엇을 마셨나요?

• _____



3) 꿀벌이 꽃가루 사이를 누비자 꿀벌의 털에 달라붙은 것은 무엇인가요?

• _____



4) 꿀벌이 퍼뜨리는 꽃가루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?

• _____

1.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꿀벌을 보호해야 합니다. 꿀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, 꿀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며 벌집을 채워 보세요.

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

아이피씨시(IPCC ·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)에서는

현재 야생벌의 40%가량이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,

10년 정도 후엔 꿀벌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.

꿀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많은 농산물이 자라게 해 주는 고마운 곤충입니다.

꿀벌이 꽃과 꽃을 다니면서 가루받이를 해주지 않으면 식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.

(웁킨이의 말 중에서)

